

정부, 기준금리 연 1.75% → 1.50%로 전격 인하

초저금리 ... 뜨거운 부동산시장에 기름 붓나

전세→월세 전환 가속화 ... 수익형·청약열기 지속

서민층 혜택 제대로 못보고 이자 생활자 더 '팍팍'

3개월 만에 정부가 또다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역대 최저점에 다다른 은행권의 예금과 대출 금리도 추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하로 인해 이자 수입에 주로 의존하는 노년층의 생활은 한층 팍팍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과일 분위기를 띠고 있는 부동산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퇴직자 등 이자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이번 추가 금리 인하는 악재가 됐다. 각 은행의 대표적인 예금 상품 금리가 이미 2%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 떨어지게 됐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의 대표 정기예금인 '국민수퍼정기예금'을 비롯, 은행연합회가 공시하는 4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COPIX)

는 1.78%로 최저치 경신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가계 부채의 80%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월 이후 내림세가 뚜렷해지면서 서민들의 빚 부담은 많이 완화됐다. 지난 4월 사상 처음으로 주택대출 금리가 2%대에 진입함에 따라 이번 기준금리 인하 덕분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정부의 안심전환대출 금리(2.63~2.65%)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생겼다.

하지만 문제는 금융소의 계층들은 금리 인하에 따른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다는 데 있다. 낮은 신용도 때문에 시중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층이 주로 찾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들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을 별로 받지 않은 채 고

금리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의 4월 일반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 가중평균)는 연 11.73%로 집계돼 은행 가계대출 금리(연 2.96%)의 4배에 육박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은행의 신용대출은 연 3~5%라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내리면 채감 인하율이 크지만 저축은행 고객들에게 그 정도 인하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은 기준금리 1%대 중반의 '초저금리 시대'를 맞게 되면서 현재의 뜨거운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전문가들은 저금리 장기화로 '전세의 월세 전환→전세부족→전세수요의 매매 전환→매매 거래 증가 및 가격 상승'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런 일련의 분위기를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 수요도 증가할 전망이다.

예금 금리가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금융권에서 이탈한 자금이 고정 월세수입이 가능한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몰릴 가능성이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 기회에 주택 임대사업을 하려는 사람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시장이 급격하게 달아오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대출금리가 이미 2% 후반까지 내려온 상태라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금융기관이 금리를 추가로 낮출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다"며 "이미 시중은행의 2%대 저금리가 장기화된 상황이라서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을 고려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위력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56.61 (+5.29)
- ▲ 금리 (국고채 3년) 1.80% (+0.02)
- ▼ 코스닥 717.00 (-1.23)
- ▲ 환율 (USD) 1108.80원 (+0.60)

“SOC로 지역 경제 활성화”

광주·전남 건설 관계자 간담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광주·전남 SOC 건설 관계자 간담회가 11일 광주시 서구 영산강홍수통제소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권석창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과 광주시·전남도·광주지방조달청·광주상공회의소·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수자원공사·도로공사·철도공사·건설협회·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SOC사업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과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전남도는 국가지원지방도 설계 시 지

자체의 점진적 권한 확대를, 광주지방조달청은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의 활용을 요청했고,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 관련 업무협약의 광주U대회 관련 도로정비·도로정관관 활용 홍보에서 유관기관의 지원을 요청했다.

건설협회는 표준시장장기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했다.

익산국토청은 실시설계 권한 위임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이날 제시된 의견 등을 검토해 국토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한전, 러·카자흐서 협력사 수출촉진회

한국전력은 11일 중소 협력기업 10개사와 함께 지난 2일부터 열흘간 카자흐스탄 및 러시아에서 독립국가연합(CIS) 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촉진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는 구소련의 후신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11개국이 가입돼 있다. 한전은 2~4일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5~11일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각각 행사를 열고, 현지 바이어 기업과 협력사 간의 일대일 수출 상담을 주

선했다. 같은 기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러시아의 대표적인 전력기자재 전시회인 'ELECTRO 2015'에도 참가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신호유화 등 10개 한전 협력사들은 총 4864만 달러의 수출 상담 실적을 거뒀다.

한전은 올 상반기 아랍에미리트(UAE), 필리핀, 독일, 나이지리아, 러시아, 카자흐스탄, 멕시코에 이어 하반기에는 9월 인도네시아, 11월 미얀마·사우디·이란에서 수출촉진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금호고속, 광주~서수원 신규노선 19일 개통

금호고속이 19일부터 광주~서수원을 운행하는 신규 노선을 개통한다. 이 노선은 1일 4회(우등 3회·일반 1회) 운행되며 소요시간은 2시간50분가량이다. 광주~서수원 상행 시간은 오전 7시 35분, 10시10분, 오후 1시35분, 6시10분

이며 하행 시간은 오전 8시, 낮 12시, 오후 4시, 7시다. 요금은 일반고속 1만 6400원, 우등고속 2만4200원이며 대학생은 학생증을 제시할 경우 3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문의(1544-4888).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 나주 농특산물 산지직송전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12일부터 18일 까지 지하 1층 특설매장에서 '나주 지역 연계 산지직송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나주지역의 우수 농축산물 홍보와 지역농가의 판로확보 및 제품홍보를 위한 기획상품전으로, 롯데백화점 광주점과 나주지역 농·축산물업체

와의 공동주최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나주 배와 녹색한우, 세지멜론, 블루베리 등 산지 직송된 나주 특산물 50여개 품목이 판매될 예정이다. 나주 녹색한우 1+등심(100g, 7800원), 세지멜론(1통, 9800원) 등이 판매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명문장수기업 만들기 포럼

중견기업연합회, 29일 광주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 명문장수기업센터가 29일 광주상공회의소에서 '명문장수기업 만들기 전략포럼'이라 '명장포럼'을 개최한다.

명장포럼에서는 기업 지배구조와 사업 전략, 기업승계전략까지 중견·중소기업 오너들이 갖고 있는 핵심 고민거리에 대해 명쾌한 답변으로 해결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 오너들이 영감과 통찰력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획됐다. 중견기업연합회가 지난해 7월22일 법정단체로 재출범 한 이후 갖는 첫 번째 공식 지역프로 그램이기도 하다.

참가신청은 개최 3일 전까지 전화(070-4808-3774, 02-3275-2107) 또는 이메일(lim0322@ahpek.or.kr)을 통해 가능하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아시아나항공, 베트남에 아름다운 교실 개원 11일(현지시각) 베트남 하노이 하이즈영성 '3.8 직업훈련센터'에서 열린 아시아나항공의 '아름다운 교실' 개원식에서 아시아나 관계자와 베트남 현지 교육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름다운 교실은 베트남 저소득층 여성의 사회 진출을 지원한다. <아시아나항공 제공>

중기청, 광주·전남 중기 10곳 강소기업 육성 지원

디케이산업·탑선 등 선정

지자체·지역기관 공동지원

광주·전남지역 10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업정의 '지역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들 기업은 앞으로 중기청과 해당 지자체의 지원

을 받아 세계 시장에 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11일 중기청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금형전문업체인 디케이산업(주)을 비롯, ㈜에스디엔, ㈜무등, ㈜현대하이텍, (주)케이테크 코리아 등 5개 기업이 선정됐으며 전남에서는 산업용 도자기를 제조하는 ㈜와이제이 씨와 함께 ㈜탑선, ㈜유립산업, 동산밸브

(주), 디와이엘엔제이(주)등 5개가 선정됐다.

중기청이 주도하는 이 사업의 목표는 성장성과 수출역량을 겸비한 지역 유망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월드클래스 기업 후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선정된 업체는 중기청과 지자체, 지역혁신기관(대학·연구소 등)이 공동으로 총 3년간 R&D와 수출 마케팅, 지역 자율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이 기간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은 정부의 글로벌 기업 육성 프로그램인 '월드클래스 300' 사업에 지원할 때 우대를 받을 수 있다. 현재 광주·전남지역 월드클래스 기업은 '오이솔루션'이 유일하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역의 숨은 강소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한국 경제 제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당신의 광장! 젊음의 광장! U-square

수비드(sous-vide) 백갈비,삼겹살 & 돈까스

아이엘리시아

수비드 삼겹살, 떡갈비, 돈까스 등 50여가지 다양한 메뉴 무한리필 (평일 16시이전 입장고객 1,000원 할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12,500원	8,500원	5,000원
14,500원	9,000원	5,500원

최상의 식재료에 최고의 예프의 감성을 담은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합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광주서초초등학교 졸업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회원	재혼
남성 의사, 변호사, 약사, 원의사 27-45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여성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스텝이디스,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	남성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출신 여성' 희망 31-58세
여성 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가사 35-64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면동 70m 하이랜드 B1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